

# “걷다가 날벼락 걱정”... 공사현장 불안감 증폭

## SOCIETY

2025년 3월 5일 수요일

### 가림막 옆 안전 무방비 상태... 낙하물 사고 위험↑ 시민들 “버스정류소 이설 등 안전대책 마련 촉구”

“머리 위에서는 쿵방거리고...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4일 광주 남구 백운우체국 버스정류소(대성초교 방향).

이 정류소에는 순환01. 매월06. 진월07 등 13개 노선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가득했고, 백운교차로가 있어 수많은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바로 뒤편에는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광주 백운동우체국 건립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 현장 앞에는 광주 백운동우체국 건립 공사에 따른 업무 중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낙하물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지붕처럼 안전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지난 2월25일 동구 지산동의 한 노후주택 철거 현장에서 가림막이 무너져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체국 건립공사 현장 바로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기 때문이다.

정모씨(35)는 “철거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스정류소가 있었다고 들었다. 자칫 사람이 지나갔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 버스정류소 이설 등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재개발사업 예정지인 누문동 재개발 구



광주 남구 백운우체국 버스정류소(대성초교 방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역 역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 지역 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이전 영업 안내’, ‘주정차 금지구역’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 구역은 유리창이 깨지거나 방치된 건물이 많아 담장 붕괴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대다수 건물은 출입금지 및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여졌거나 가림막으로만 막은 상태였다.

주차금지 스티커에는 위험 요소가 많은

노후 폐·공사이므로 관계자 이외 출입을 엄격히 금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침입 등의 모든 행위 시 부정확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고지됐다.

하지만 방치된 건물 주변으로 시민, 차량이 지나가거나 주차하는 운전자의 모습도 보였다.

특히 광주일고·광주고용센터(금남로

방향)와 양동시장 교차로(광주역 방향)의 버스정류소 뒤편에는 각각 4층·1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 역시 사람 출입 또는 불법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한 얇은 가림막과 이를 고정하기 위한 쇠파이프 설치가 전부였다.

현재 이곳은 송정19. 금호36. 문흥39 등 10여개의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전문가는 사고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며 안전 점검, 구조물 설치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중현 호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공사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도 사고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사 현장과 인접한 버스정류소에는 이전이 가장 좋지만 어려운 곳도 많다. 낙하물 사고방지를 위해 튼튼한 보행자 보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 예보 06:57 달맞이 09:50  
☁️ 예보 18:31 달맞이 --:--



광주	☁️	2~10
목포	☁️	3~8
여수	☁️	4~9
순천	☁️	2~10
구례	☁️	1~11
광주	☁️	2~9
임도	☁️	3~10
진남	☁️	4~7
고흥	☁️	2~9
진도	☁️	3~8

목포	밀물(고)	06:00 / 18:02
	썰물(저)	10:58 / 23:12
여수	밀물(고)	00:31 / 12:32
	썰물(저)	06:24 / 18:41

### 음주운전 50대 남구청사 돌진

☞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 남구청사로 돌진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돼.

4일 광주 남부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전날 오전 3시3분께 광주 남구 백운교차로에서 운전 중 하다가 광주 남구청사 1층 북카페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 시간대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다만 사고로 인해 청사 외벽과 북카페 유리창 일부가 파손돼.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만취 상태에서 지인 무차별 폭행 30대 구속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지인들을 무차별하게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은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술집에서 30대 남성 B씨, 여성 C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폭행 상황을 목격한 손님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인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가 말다툼으로 번지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만취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여회 때렸다.

A씨의 폭행은 B씨가 기절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자신을 만류하는 C씨에게도 주먹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함과 동시에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C씨에 대한 폭행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인의 중대성,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최근 발부반었다.



“우리동네 경로당 건강더하기 1234” 광주 서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직원들이 4일 상무우미아트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상담과 노인 우울증 검사, 약손안마를 하고 있다. 서구는 지역 내 경로당을 방문해 ‘우리동네 경로당 건강더하기 1234’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의대 학장들, 학생 복귀 호소문... “정부 설득할 것”

#### 전국 40대 의대 수강신청 4219명...5명 중 1명 꼴 “1학기 복귀하지 않으면 2026년엔 감당할 수 없어”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새 학기에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에게 복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외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4일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1년간 의사 양성이 중지돼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이 드러날 것이다. 이를 1년 더 반복하면 우리 사회와 학생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1학기에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년째 의사 배출 중단으로 이어져, 의사 양성 체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2026년에 3개 학년이 함께 1학년

을 맞이하면 도저히 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며 “일선 의대를 운영하는 학·원장으로서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타 대학에서 교육부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지닌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2월24일 교육부 장관과 학·원장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정부에 3가지 의결사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대협회는 앞서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의대협회는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는 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대협회는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며 “미래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 교육기관인 의과대학을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의대협회가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고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불법도박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자백 시켜

50대 전과자 유죄 선고

5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도박이 적발되자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50대 전과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 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광주 복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총 122회에 걸쳐 5억7770만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4월 불법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택에 있던 아내 B씨에게 “남편의 계좌로 내가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B씨는 경찰 조사에 “남편이 우울증이 심해 남편의 계좌를 이용해 내가 도박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과거에 도박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재범 시 가장 처벌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아내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NAVER 광주바로연

# 바로연

##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유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0